

오리온 '2022 새해 흥!하자' 선물세트 출시

오리온이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전용 한정판 '2022 새해 흥!하자'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1974년 호랑이띠 해에 출시한 초코파이를 비롯해 호떡품은 참봉어빵, 포도알맹이 등 인기 스낵 8종을 담았다. 케이스에는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와 빨간색 북 주머니를 디자인해 설 분위기를 살렸다.



공정성 논란에 빠진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돌연 재심사 공고... '특정 컨소시엄' 밀어주기?

심의과정 마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늦은 심사위원 자격 문제로 무산 도시공사 "공정성 논란 차단" 해명 명확한 소명 이후 재심사 이뤄져야

경기 안양시의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공정성 논란 속에 연이어 파행을 빚고 있다.

안양도시공사는 7일 공고를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를 추후 재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주체인 안양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공약성 제고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취소한 뒤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12월 28일 발표하기로 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탄약부대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320여만㎡ 부지 중 3분의 1 정도에 대체 시설을 설치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규모는 총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공모에는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12월 28일, 무슨 일이?

재공모에 돌입한 공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22일까지 관련 사업 공모심사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를 통해 국방·군사 2명, 토목 1명, 교통 1명, 환경 1명, 도시계획 1명, 부동산 2명, 재무·회계 2명 등 총 10명에 대한 심사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공고문에 자격요건을 명시해 요건에 맞는 심사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소속 기관장 등



총 사업비가 2조 원에 이르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연이어 파행을 빚으면서 공정성을 담보로 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사진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개발 구성(안). 사진제공 | 안양시

의 추천서, 응모 자격 증명서류 등을 함께 받았다.

공사는 서류 등의 자격 요건 확인을 통해 부적격 후보를 거른 후 28일 심사 당일 오전 각 컨소시엄 대표자 4명과 함께 심사위원 10명을 포함한 예비 심사위원까지 총 30명을 선정했다.

3배 수 심사위원에 대해 각 컨소시엄의 대표 추천자들은 '선정된 심사위원의 제안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 사항이 없다'고 서명했다. 이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최종 심사위원 10명 앞에서 각 컨소시엄 대표 발표자들은 사업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발표자들이 퇴실한 오후 4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공사 관계자와 선정위원들은 재점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오후 6시 30분께 공사의 한 임원이 "한 컨소시엄으로부터 뒤늦게 A 심사위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돌연 결과 발표를 중단시켰다.

사전에 적정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던 일부 컨소시엄 측은 점수 집계 뒤 발표 직전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공사 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결과를 뒤집어 특정 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오류는 없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배찬주 공사 사장은 "법률 자문 결과 심사위원 자격 논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기획재정부 승인, 국방부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공사 사업지원부 관계자도 11일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절차상 오류는 없었지만 이의 제기가 자체가 논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 측이 자신들이 주관 하에 심사위원들의 자격심사, 추첨, 심의과정을 거친 심사결과가 나온 후 뒤늦게 자격 문제를 이유로 결과 발표를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번번이 논란이 되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전문가는 "공사 측은 심사위원 추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보안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재심사 결정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소명이 이뤄진 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재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 측은 재공고를 통해 다시 진행된 재심사에서는 심사위원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CJ제일제당, 핫반 용기 재활용 캠페인

소비자가 직접 수거 참여...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CJ제일제당이 CJ더마켓에서 '지구를 위한 우리의 용기 캠페인'(사진)을 진행한다.

소비자가 사용한 핫반 용기를 직접 수거해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 시키는 핫반 용기 재활용 캠페인이다.

핫반과 수거박스가 함께 담긴 기획 세트를 구입한 뒤, 사용한 핫반 용기 20개 이상을 택배사를 통해 돌려보내면 된다. 수거박스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집 앞에 두면 용기가 회수될 때마다 CJ원 포인트 1000점도 받을 수 있다.

수거된 핫반 용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분리 및 세척 과정을 거친 뒤 원료와 작업을 통해 명절 선물세트 트레이 등에 사용된다. 핫반 업사이클링뿐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수익원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공유가치 창출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온라인 시범운영 뒤 핫반 용기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등에 '핫반 용기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오프라인 회수 거점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400만 개의 용기를 회수하는 게 목표다.

회사 측은 "이번 캠페인이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향후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CES 참석 삼성 직원 20여명 코로나19 확진

미국 전시회에 참석했던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 2022'에 참석했던 삼성전자 직원 20여 명이 현지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삼성전자는 이런 사실을 사내에 공지했다.

해당 직원들은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삼성전자가 파견한 의료진의 지원을 받으며 현지에서 자체 격리를 실시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당국과 협의해 전세기를 투입하고 직원들을 국내로 이송한 뒤 격리 시설에서 머물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CES에는 전 세계 23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했다. 현장에는 4만 명이 이상이 다녀갔는데, 그 중 30%가 미국 및 지역에서 온 참가자로 국가 수는 119개국에 달한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외에 LG전자, 현대차, SK텔레콤 등이 참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신기남 전 국회의원, OSC의 사랑 '마요르카의 연인' 출간

(필명 신영·트롯 가수 신인선 외)

신간

30년 세월 동안 숙성시켜온 이야기 OSC 배경으로 사랑과 운명 그려내 첫 작품 이어 영화로 재탄생 바람도



소설의 '녹턴' 선을 속에 녹아든 해군장교와 피아니스트의 사랑 이야기 '마요르카의 연인(북스토리 출간)'이 나왔다.

소설을 쓴 작가의 이름은 신영. 하지만 현 대통령 소속 도서평정정책보위원회의 위원장이자 4선의 국회의원 '신기남'으로 훨씬 더 익숙하다. 요즘은 '트롯스타 신인선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하나 더 생겼다.

그는 전작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2019)'을 통해 삶과 역사와 정치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엮어냈던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줄곧 영혼 속에 담아 숙성시켜 온 이야기를 두 번째 장편소설 '마요르카의 연인'에서 풀어냈다.

해군과 해병장교를 육성하는 과장인 OSC(해군사관후보생대) 출신으로 해군장교로 병역을 마친 저자는 리처드 기어 주연의 영화 '사관과 신사'를 본 후 한국의 OSC도 풍부한 스토리 잠재력을 갖고 있을



필명 '신영'으로 두 번째 소설을 낸 신기남 전 의원(왼쪽)과 트롯스타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의 아들 신인선.

을 직감하고, OSC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구상했다. 하지만 소설이 완성되기까지는 와인처럼 숙성될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다.

'마요르카의 연인'은 경남 진해에서 스페인의 마요르카까지,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운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소설은 주인공이 '자네'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시작된다.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는 불박이별 같은 이야기다.

작가 첫 작품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은 지난해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크로아티아어로 번역돼 출간됐고, 크로아티아 정부의 후원으로 영화화될 예정이다. 작가는 '마요르카의 연인' 역시 우리 해군의 후원을 받아 영화화되기를 희망한다.

작가의 아들이자 요즘 트롯스타로 각광 받고 있는 신인선 역시 해군 홍보대사 출신으로 지난해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1 해군 창설 기념 76주년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에 출연하기도 했다. '트롯 야사', '6시 내 고향', '좋은 아침', '엄마의 봄날', '부캐전성시대', '박세리 내일은 영웅' 등 각종 예능, 음악 방송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신인선은 스포츠동아 유튜브 채널 '스포츠동아TV 일파만파'의 진행을 맡아 골프에 관한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기몰이 중이기도 하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맞춤진료"

삼성서울정형외과의원 20일 개원



척추관절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삼성서울정형외과의원이 시흥 능곡역 인근에 20일 개원한다.

삼성서울정형외과의원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를 비롯해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등 다양한 근골격계 부위 통증 및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를 한다. 원내에 x-ray 장비와 근골격계 초음파 등 첨단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박종호 원장이 스포츠 손상 및 외상(골절&염좌)에서부터 퇴행성 관절염, 어깨 오십견(동결견)에 이르기까지 각종 척추관절 질환에 대해 맞춤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연령과 원인에 따라 C-arm 가이드 신경주사, 초음파 가이드 관절주사, 체외충격파 치료와 도수치료, 운동 재활치료, 체형교정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제공한다.

박종호 원장(사진)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만족스러운 치료를 선보일 것"이라며 "내 가족을 맡길 수 있고, 누구에게나 추천해 줄 수 있는 병원이 목표인 만큼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과잉진료 없이 문제점만 명확히 짚어내 정직한 치료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